

학부모용 청렴교육 매뉴얼

꼭 알아야 할 청렴지식, 나누어야 할 청렴상식



연구책임자	조 상 식(동국대학교)
공동연구원	김 한 창(동국대학교)
공동연구원	송 선 영(성신여자대학교)
공동연구원	한 미 희(남서울대학교)
연구보조원	유 정 주(주식회사꽃다지)
연구보조원	임 광 국(동국대학교)
연구보조원	장 은 영(동국대학교)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차 례

I. 부모님이 알아야 할 청렴상식	1
1. 청렴의 정의	1
2. 청렴선진국은 이정도입니다!	3
3. 국내 부패방지 관련제도 알고계시나요?	7
4. 국내 주요 청렴정책은 이렇습니다	8
5. 이런 것이 사회생활 아닌가?	11
6. 청렴기업은 손해다?	12
7. 청렴하면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13
II. 아이와 나누는 청렴이야기(1)	14
1. 공정의 갈등사례	14
2. 정직의 갈등사례	16
3. 책임의 갈등사례	18
4. 약속의 갈등사례	20
5. 절제의 갈등사례	22
6. 배려의 갈등사례	24
III. 아이와 나누는 청렴이야기(2)	26
1. 국외 부패사례	26
2. 국내 부패사례	27
3. 국외 청렴인물	28
4. 국내 청렴인물	29
5. 청렴과 가정의 행복	31

I. 부모님이 알아야 할 청렴상식

1. 청렴의 정의

■ 청렴의 정의

- 사전적 의미의 ‘청렴(淸廉)’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 오늘날에는 개인수준의 도덕성에서 나아가, 법적 강제성과 의무수준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2007년 행정학회)

- ‘부패’란 공직자 및 일반국민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이 동원되곤 합니다.

※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청렴’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정의감을 근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하는 적극적 의미의 행동기준입니다.

■ 혼동하기 쉬운 부패행위

- 부자에게 뇌물을 받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면 괜찮다?
 - 부도덕한 이익이거나 사리사욕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불법한 보수나 부정한 이익은 곧 '뇌물'이 됩니다. 사회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돌려주면 뇌물수수가 아니다?
 - 일단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후에 반환하였다고 해도 뇌물죄입니다.



2. 청렴 선진국 이정도입니다!

스웨덴에서는 공공카드로 조카선물을 구입한 수상이 중도 사퇴

□ 관련사례



- 전 스웨덴 부총리 ***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 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약 34만원)어치를 공공카드로 구입한 사실이 정보공개 과정에서 밝혀졌음. 그는 이후 자기 돈으로 카드대금을 메워 넣었음을 항변하였으나, ‘정부와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함.

*사진설명: 스웨덴 국회전경 **사례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 작은 비리사건이 정치인의 사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 철저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

- 1766년 「출판언론자유법」 제정을 시초로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21세기 70여 개국에 전파하였습니다.
-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기록’**으로 규정하여 시민청구시 공개합니다.
 - ※ 자의적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1982년 「기밀보호법」 제정
- **옴브즈만 제도** 최초로 만들 - 정부의 권한 남용 견제
- 국가사회보장의 확립으로 부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구조

□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이메일·전화통화 등 증거가 있으면 범죄로 기소됩니다.
- 뇌물을 제공하지 않고 편의만 제공해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 비리 및 뇌물연루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 ※골프, 사우나, 사냥은 형법으로 금지

■ 핀란드에서는 단순 교통위반에도 약 1억8천만 원의 벌금 부과

□ 관련사례



- 수입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이파인 시스템(dayfine system)에 따라 대기업 간 부인 ***는 고속도로에서의 속도위반 혐의로 직전년도 수입의 1/14인 8만 4,000유로(약 1억 4,000만원)를 납부함
- 2003년 핀란드 교육부가 한 골프장 주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이 그 골프장의 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짐.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자 교육부장관은 그 자리에서 자진하여 장관직을 사임함

*사진설명: 핀란드 경찰의 교통법규 단속 장면 **사례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핀란드의 청렴 비결은?

□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

- 청렴국가 건설의 바탕이 된 것은 **세금기록을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핀란드 국민은 누구나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신이 알고 싶은 사람의 소득과 재산, 납세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 ※ 세금, 주식거래, 인허가 관련 정보, 학교운영 정보 등 부정과 비리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허용하지 않음
 - 투명한 소득공개를 바탕으로 각종 범칙금을 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하자 자연스럽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 가능해졌습니다.
- 정직과 청렴이 습관이 된 국민들
 - 기업과 공직자 모두 부패발생은 곧 국민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철저하게 정직과 청렴을 실천합니다.
 - ※ 세업무관계자와의 식사, 공직자에 대한 명예박사학위 수여도 뇌물로 간주

■ 과거 아편과 밀수가 만연했던 싱가포르의 2010년 국가청렴도는 세계 1위

□ 관련사례



- 1987년 리관유 총리는 친구였던 치앵완(鄭章沅) 국가개발부 장관이 뇌물수수혐의로 CPIB에 적발되자, 주변 인물들의 ‘선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음. 그가 옥중에서 자살한 후 미망인이 최소한 부검은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자연사 이외에는 부검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들어 사적인 부탁을 끝까지 거절함

- 싱가포르에는 모기가 거의 없다고 함. 공무원들이 업자들의 집요한 설계·구조 변경 로비와 뇌물 공세를 물리치고, 모든 하수구의 경사를 물이 괴지 않도록 절묘하게 조절하여 만들었기 때문임

*사진설명: CPIP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패교육자료 **사례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 한때 부패가 만연했던 국가에서 청렴국가 1위로 발돋움한 싱가포르의 비결은?

□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 탐오조사국(貪污調查局, CPIB)

- 1960년 설립된 부패사정기관 탐오조사국을 중심으로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적발과 처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거나 이에 따른 처신을 한 경우 범죄가 성립됩니다.
 -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별도로 뇌물전액을 반환하되, 반환능력이 없는 경우 액수에 따른 징역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 ※ 최고 5년의 징역에 벌금도 1만 싱가포르달러(약87억 원) 병과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부패신고가 가능하고 고발인이 민·형사재판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직자들의 굳은 청렴의식
 - 리관유 초대 총리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강한 부패척결 의지로 탐오조사국의 독립성 보장 등 반부패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 뇌물공여 시 계약 자동취소

■ 홍콩에는 엄정행동조가 있습니다

□ 관련사례



- 홍콩의 한 경찰공무원은 재산공개 과정에서 과도한 재산증식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200만 홍콩달러(약 17억 원)를 반납하고 2년형 선고
- 홍콩의 한 공무원은 경마를 통해 돈을 벌어 짧은 기간 동안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증언하였으나, 결국 거짓임이 드러나 3년 3개월형 선고
- 홍콩 법무부의 고위검사도 재산증식 사유를 설명하지 못해 12만 홍콩달러(약 1,700만원)를 반납하고 7년형을 선고, 형 집행 후에는 국외로 추방

*사진설명: 엄정행동조 촬영장면(www.icac.org.hk)

⇒ 홍콩에서 공직자들의 철저한 재산공개와 사후 책임이 가능한 이유는?

□ 가장 성공한 부패방지 기관 ‘엄정공서(廉政公署)’

- 1974년 설립 이후 부패 수사 및 사전 예방, 대민교육 등의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집행처’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한 부정부패 민원접수, 심사, 조사 및 수사업무 담당합니다.
 - ※ 강력한 수사권- 영장 없이 체포가능, 자료제공 요구 불응시에는 구속
 - ※ 공직자 재산형성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재산 뇌물간주로 몰수 및 처벌
- ‘부패예방처’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절차 및 제도개선,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한 조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관계처’는 부패방지를 위한 대민교육, 드라마·광고 등을 활용한 시민의 지지확보에 주력합니다.
 - ※ 반부패교육은 유치원생부터 정규과정임
 - ※ 홍콩드라마 「엄정행동조」를 통해 씬 없이 반부패의식 고취

3. 국내의 부패방지 관련 제도 알고 계시나요?

■ 국내 부패방지 관련법령

- 감사원법 제20조
- 검찰청법 제4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 국무총리훈령(공직기강 업무규정) 제3조~제10조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2조의 2, 제6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등

■ 국내 부패방지 기관

기관	주요업무
감사원	직무감찰
검찰 및 경찰	범죄조사 및 기소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행정자치부	행정감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 국내 부패방지 기관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은 정부를 비롯하여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4. 국내 주요 청렴정책은 이렇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부패인식도 조사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청렴도 측정 확대 실시 원칙 하에 2010년에는 711개 공공기관, 총 226,855명을 측정하였습니다.
- 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나누어 측정됩니다.
 - 외부청렴도 :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대민업무 중 부패 발생 소지가 높은 업무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 내부청렴도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예산 집행의 적정성, 청렴문화지수 등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 '10년도 706개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44점입니다.

- 외부청렴도의 부패 경험률은 금년 소폭 증가한데 비해, 내부청렴도의 부패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운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8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OECD 회원국은 필수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함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례

- 이런 것도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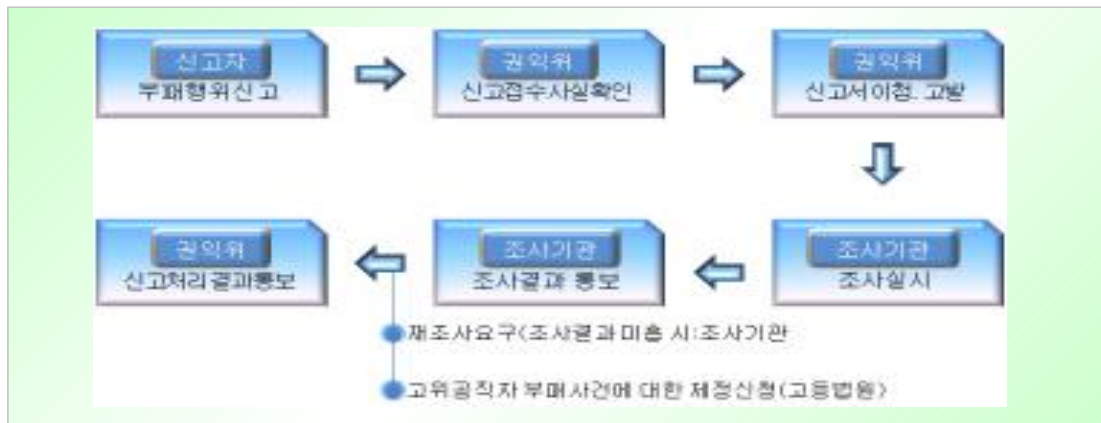
- 스승의 날 선생님께 화장품 세트(3만원 초과)를 선물했다면?
 ⇒ 재학생, 학부모, 계약관련 업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선물은 행동강령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합니다. 단, 졸업생으로부터의 감사의 선물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들의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나요?

-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위한 '답사담당 선생님의 무료관광'
 - 현장체험 행사 진행업체로부터 숙식 및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것
 ⇒ 모두 공직자 행동강령(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위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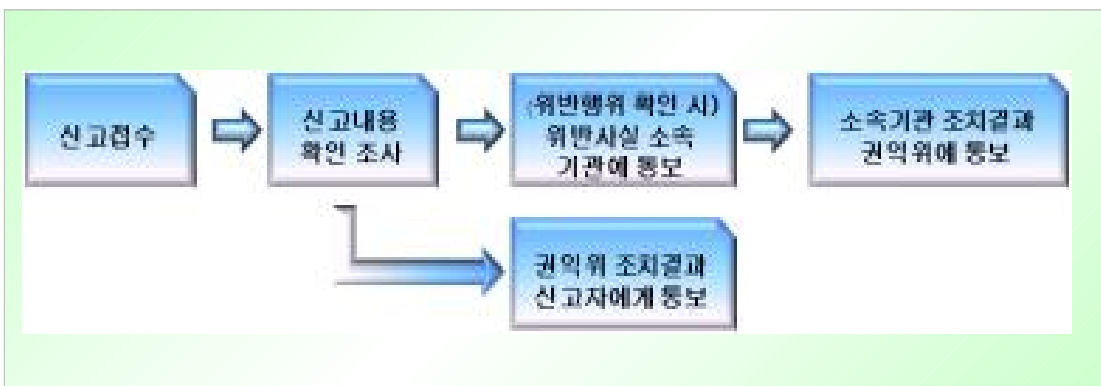
부패신고상담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 신고방법은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홈페이지 모두 가능합니다.

행동강령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 권익위가 직접 조사하여 60일 이내 알려드립니다.

신고자 보상금 지급절차



- 부패신고자에게는 신분보장 · 신변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5. 이런 것이 사회생활 아닌가?

■ 흔히 잘못된줄 모르고 하는 청탁행위

□ 개업을 하는데 친척 공무원에게 화환을 자기 비용으로 부담하고 친척 공무원의 직위와 이름만 빌리는 것은 청탁이 아니지 않을까?

- 개업하는 곳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인 친인척 직위와 이름 등을 활용하였다면 그것도 청탁입니다. 또한 그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청탁전화 안 통합니다

□ 공무원은 청탁전화도 부패기회의 원천차단으로 교육받고 있습니다.

- 긴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는데
- 한번 좀 만났으면 하는데
- 거기 있으면서 그 정도 힘도 없어?
- 알고 보니 완전히 꽉 막혔네
-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언젠가 너도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은 이제 공무원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청탁전화 안 통합니다”

■ 사회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정(情)인데...부패 맞습니다

□ “경조사때 조금 더 넣어주는 거야/ 세상 정이 다 그렇지 / 작은 선물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 공무원은 경조사 5만 원 이상, 선물 3만 원 이상을 넘으면 주저 없이 행동강령담당관에게 신고를 합니다!

6. 청렴기업은 손해다?

기업윤리 사례

-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 7명이 사망했고 해열진통제의 최강자였던 타이레놀은 시장점유율이 7%로 추락했다. 타이레놀 제조사인 존슨앤존스의 CEO인 제임스버크는 즉각 사과하고 타이레놀 3100만 병을 수거해 폐기했으며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제품을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누군가의 독극물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후 존슨앤존스는 윤리경영의 대명사가 되었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0년4월호 참조>

-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이제 단순히 한두 번의 윤리적 광고나 마케팅을 넘어 윤리를 통한 경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핸드폰 기업으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경쟁업체로 잘 알려진 노키아의 경우 최상의 윤리적 규범과 법 준수, 환경보존, 인권권리존중에 충실하지 않은 업체는 하청업체로 지정을 하지 않을뿐더러 수명이 다한 제품의 처리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다. (www.nokia.com)

이러한 흐름은 비단 노키아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유수의 기업들이 청렴해야하고 청렴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청렴하면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이래도 청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청렴은 가정의 행복입니다. 따분한 소리라구요? 아닙니다.

일상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런저런 서류를 증빙하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혹은 저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탐색하고 검증하는데 시간과 돈을 투입합니다. 이런 비용들을 탐색비용이라고 칭합니다. (Putnam이라는 학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색비용이 감소하면 개인의 비용이 절약되고 사회전체의 비용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환원되는 것이죠.



• 국부(國富)는 어디에서 오는가? (World Bank, 2007. 10)



▷ 21C 국가의 생산성은 신뢰성, 투명성 등 '사회적 자본'이 좌우

–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OECD 선진국의 1/3 수준

<국부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자본의 비중>

II. 아이와 나누는 청렴이야기(1)

1. 공정의 갈등사례

가정

□ 내일이면 개학인데 아이가 아직 방학숙제를 다하지 못했다. 아이가 선생님께 꾸중 듣는 것도 염려스럽고 조금만 도와주면 방학숙제로 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이의 숙제를 도와줘야 할까?

● 결과론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아이와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아이의 사기까지 올라간다면 최고 아니겠어?”

●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숙제를 하면서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자립심을 키워주는 거야. 부모가 도와준 숙제로 상을 받는 것 보다 혼자 힘으로 해 간 숙제로 상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 아이를 더 떳떳하게 해 줄 거야.”

⇒ ‘공정성’을 떠올려보세요! 부모의 과제로 평가가 된다면 우리는 수긍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의무론적 관점’에 마음이 기울지 않으시나요?

□ 부모님을 위한 윤리학 체계 TIP

윤리학은 크게 결과론적 관점과 의무론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적론적 관점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유명한 벤담의 공리주의로 대변됩니다.

의무론적 관점은 ‘옳은 것이 좋은 것에 우선한다’고 보는 칸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회

□ 남편이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의 경조사를 갈 때는 기관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 결론론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 남편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것은 기관의 발전을 위한 일이기도 하잖아. 남편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좀 더 공적인 일에 집중을 하게 하는 것이 외조라고 생각해. 더군다나 마땅히 다른 대안도 없는데 오히려 잘 판단한 거야.”

●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사적인 일에 대해서 기관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익이라고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어? 또 남편이 공적인 일에 사용해야 할 기관차량이니까 특수 관계인 부부관계라고 할지라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사기업이라도 공과 사가 분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례> **시 시장부인 관용차 사용

2006년 **시 시장부인이 관용차를 공사 구분 없이 사용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로 논란이 뜨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렴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부모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 정직의 갈등사례

가정

□ 아이가 학교에 돌아와서 중간고사 시험기간에 부정행위를 하는 친구들을 보았다고 한다. 우리 아이에게 선생님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해야 할까?

● 결과론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아이가 부정행위를 한 친구를 선생님께 이야기 할 경우와 이야기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 아이에게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일까? 혹시 고자질쟁이라고 놀림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 고자질 했다고 괴롭힘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행위를 보면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어? 우리 아이가 나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판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확인하는 거야. 아이에게 당당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라고 하자.”

⇒ 이런 갈등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과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려면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 사회

□ 절친한 직장동료가 회사영업을 위해서 납품기관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고 결국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묵인해야 할까?

● 결과론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서 회사가 안정되면 직원들의 가정도 안정된다는 점에서 묵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면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하지 못한 행위가 발견되었다면 즉각적으로 시정을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는가? 당장에야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회사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 전형적인 공익신고의 사례로 내부시스템에 의해 해결을 하려고 노력한 후, 외부에 의해 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사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비윤리적인 행위가 척결되는 것이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참 많이 있습니다.



<사례>

중견건설업체인 모건설회사의 회장은 본인회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생긴 납품 및 감리 비리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뒤 직접 발로 뛰며 관련증거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6년째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3. 책임의 갈등사례

가정

□ 맞벌이 부부라 오늘은 남편이 유치원이 끝날 때쯤 아이를 데리러 가기로 약속을 했다. 하지만 남편 회사에서 급하게 고객접대 약속이 잡혀버렸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

● 결과론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고객접대를 잘 해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이 내 가족을 위한 길 아니겠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이에게 잘 설명해서 양해를 구한다음 유치원에 부탁을 해서 시간을 좀 벌면 두 가지 모두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어린 자식과의 약속이고, 일상생활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약속을 어길 수는 없어. 반대로 고객접대는 다음기회에 할 수도 있으니까 고객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음 아이와의 약속을 지켜야겠어.”

⇒ 우리는 상황에 따라 어떤 결론도 가능하겠지만 돈보다 우선시 되는 가치를 위해 용기를 내야 할 시점이고 그러한 용기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객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고객도 기분 좋게 일정을 수정해 주실 겁니다. 아이를 위해 고객에게 용기를 내 보시는 것은 어때요?

■ 사회

□ 회사에서 개발한 신기술이 안전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기술자들은 상사에게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 재논의를 하자고 하였다. 상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언급할 경우 사표를 내라고 하였다. 기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 결과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나의 책임만 다하면 되겠지. 회사가 다양한 단계를 가진 것은 모든 것을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 아니겠어? 사표까지 내면서 내 가족을 힘들게 할 수는 없어.”

● 의무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분명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규정상의 의무만을 한다는 것은 전문가로서 윤리적 행동은 아니야. 내가 전문가라고 한다면 설령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안전성에 대해서 경고와 위험방지를 하겠어.”

⇒ 전문가에게 고도의 전문가적 윤리의식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더욱 더 높은 수준의 전문가의 윤리가 요구되고, 이에 상응한 사회적 안전 및 보상체계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사례>

토요타 자동차는 가속페달과 관련한 문제로 미국에서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되고, 판매처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각종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논란은 있지만 모든 분야에 고도화된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어 신기술의 부작용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4. 약속의 갈등사례

가정

□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나가려니까 아이가 뒤쫓아 나오며 울었다. 증자의 아내는 집에 가 있으면 돌아올 때 돼지를 잡아서 맛있는 고기를 해준다고 약속을 하였다. 시장에서 돌아온 아내는 증자가 돼지를 잡으려고 하기에 깜짝 놀라 아이에게 농담으로 한 얘기라며 증자의 행동을 막았다. 이에 증자는 아이들은 부모가 한 것을 배우게 되니 안 될 말이라며 돼지를 잡았다고 한다. 증자의 행위가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가?

● 결론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아이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돼지를 잡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정의 재산을 지켜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아이에게 도움 되는 행동이 아니겠어? 당연히 약속도 경중이 있고 하얀 거짓말과 검은 거짓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

● 의무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거야. 자식과 한 약속이라도 그리고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존중도 신뢰도 지켜지지 않을 거야. 내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이와의 약속은 지켜져야 돼”

⇒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는 직관적으로 가까운 사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의 정직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커서 부모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사회

□ 도산 안창호 선생이 상해에 있을 때, 소년단원이 5월에 있을 행사를 위해 약간의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자 5월이 되기 전에 집에 찾아가 마련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이후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해서 상해 전역에 애국지사 검거령이 내려졌으나 안창호 선생은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해에 나갔다가 순사에게 잡혀 3년간 복역을 하였다. 더 큰 일을 위해 몸을 피해야 하지 않았을까?

● 결론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소년단원이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독립운동에 헌신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갖는 것이 더 바른 결정이야. 더군다나 상황이 변했는데 약속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수가 있어.”

● 의무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상황의 논리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면 독립운동의 명분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식민지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잖아. 내가 독립운동을 한다면 경찰에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작은 약속부터 지켜내야 해.”

⇒ 청렴한 행위는 내 마음속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시작이겠죠? 우리 사회의 마음의 소리는 어떤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 해줄까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부모일까요?



<사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는 전관에우라는 풍토를 없애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는데 이 대법관은 결국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5. 절제의 갈등사례

가정

□ 아이의 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 경제적 환경에 맞지 않아도 유명 상표 상품을 사주는 것은 올바른 일일까?

● 결과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유명상표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유명상표를 구입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해. 유명상표를 사주지 않음으로써 아이가 반항심을 갖고 학교생활에서도 자신감을 잃고 다니는 경우와 비교해보면 결론을 알 수 있잖아?”

● 의무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아이에게 유명상표를 구입해야 할 이유를 들어보고 필요성이 분명하다면 유명상표를 구입해줘야 하겠지만, 다른 아이들을 의식해서 사야한다면 아이에게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거야”

⇒ 남의 눈을 의식하다가 혹은 체면을 생각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한 발 더 나아가 무안했던 경우는 없으셨는지요? 남보다 더 잘난척하려고 무리한 생색을 내는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시지는 않겠지요?

■ 사회

□ 검사의 아버지에게 사기를 친 사기범이 구속되었다. 공교롭게도 그 사기범은 아들인 검사에게 붙잡혔다. 그리고 그 검사는 최대한의 형벌을 가하려고 한다. 검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 결과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법의 재량권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준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범죄자에게 뉘우침을 크게 줄 수 있고 부모님의 억울함도 크게 해소시켜주는 방법이 아니겠어?”

● 의무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벌을 주기 위해 재량권을 사용한다면 벌주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데 목적으로 전환되는 주객전도가 되는 거잖아. 형법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만 돼”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고 싶지 않으시죠? 내 경우에 내 자식이 검사일 때 어떤 판단을 하도록 요구해야만 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자식을 위한 방법일까요? 예외를 인정하면서 재량권을 남용하다보면 결국 원칙이 없어지고 판단기준도 불분명해지지 않을까요?



<사례>

**도내 중고등학교의 교복 공동구매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유명 상표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6. 배려의 갈등사례

가정

□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한국에 친척이 하나도 없는 딸의 공향 마중을 부탁받고, 이를 흔쾌히 허락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신의 딸의 피아노 대회와 날짜가 겹치게 되었다.

● 결과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피아노 경연대회는 딸의 장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오히려 미국 친구의 딸에게 양해를 구하고 딸의 피아노대회에 참석해서 친딸을 응원하는 것이 타당한 행위라고 생각해.”

● 의무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감정적으로는 딸을 더욱 보호해야 하지만 선약을 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친구의 딸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 행위라고 할 수 있어.”

⇒ 배려의 관점은 ‘희생’이라는 점에서 목적론적 관점보다는 의무론적 관점에서의 행동기준이 우선시 될 수 있습니다.

■ 사회

□ 몸살기운으로 지쳐 있을 때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을까?

● 결론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양보를 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볼 때 더 큰 손해라고 할 수 있잖아. 또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나 또한 배려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배려를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내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고통이라고 본다면 고통을 받는 사람이 적을수록 사회의 복리가 늘어난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

● 의무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양보를 하는 것이 마음이 편안하겠지? 맹자의 사단에서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보편적 정의 즉 사회에서의 가르침에 귀 기울인다는 점에서 양보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되는 행동인 것 같아.”

⇒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더슨은 희생과 시민정신이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배려이기도 하구요. 현재의 우리사회의 윤리로는 노약자에게 배려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므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더 나은 행동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

서울 금천구 시흥역 선로에 떨어져 있던 50대 후반의 남자를 열차가 도착하기 직전 피신시켜 구출한 고등학생 ***군은 “정신을 잃은 채로 미동도 하지 않은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III. 아이와 나누는 청렴이야기(2)

1. 국외 부패사례-부패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 일상부패

- 2010.10.14 미국 뉴저지의 캠던시 검찰은 한 경찰을 부패혐의로 기소하였다. 조사를 한 결과 그 경찰은 약 1년 전부터 마약을 운반해 주고 일부 마약은 다시 훔쳤으며 훔친 마약을 재배하기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P>

■ 민간부패

- 2010년 멕시코만 원유유출사건의 원인으로 원유시추의 감독기관인 연방광물관리청(MMS)이 원유시추 및 천연가스발굴대가로 연간 100억 달러(한화 12조원)에 달하는 유정사용료를 거둬들이면서 석유회사들의 안전규제 등 법규집행까지 담당함으로써 많은 부정과 비리가 발생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공부패

- 인도의 자르카랜드(Jharkhand)주의 저명한 정치인인 ***는 540만 달러 상당의 돈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주정부의 수상을 38세의 젊은 나이에 2년동안 지낸 바 있는 유명한 정치인이다. <Earth Times>

2. 국내 부패사례-방심하면 부패합니다

일상부패

- 2010년 10월 **시 교육청 국감장에서 나온 여야의원들의 지적사항
 1. 교장실 호화 리모델링, 급식비리, 수학여행비리, 교재비리
 2. 수학여행 버스업체, 숙박업소 선정과 관련하여 32명의 교직원이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
 3. 특정출판사 부교재 선택 대가로 교원 20명 금품수수 사례 등

민간부패

- 2010년 8월 대법원은 **그룹 회장과 경영진에게 개인투자자의 주가 손실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룹의 분식회계는 거대한 그룹을 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사회적인 책임으로 돌아와 개개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공공부패

- 2010년 경찰청에 지자체 토착비리에 대해서 검거한 결과 군에서 발주한 조명공사를 수주하게 도와주고 업체에서 1억 9천만 원을 받은 군수, 골프장 대표와 부동산 업자에게 1억3000만원을 챙기고 마을공금 2억 원을 횡령한 시의장, 재건축조합장 등에게서 각종 인허가 명목으로 3억9000만원을 챙긴 구의원 등 620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2010.7.6>

3. 국외청렴인물

찰스 네이피어경



□ 찰스 네이피어경 (Charles Napier, 1786.3.6 ~ 1860.11.6).
영국 군인으로 식민지인 인도에서 근무할 때 인도군 총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인도의 토호들이 가지고 온 값비싼 선물들을 모조리 돌려보냈다. 그는 아직까지 내 손을 더럽힌 적이 없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온 칼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다고 단언했다.

*사진 설명: wikipedia 원용

충의공 산운



□ 충의공(忠毅公) 산운(山雲)은 정직하기 그지없는 관리였다. 그가 장군으로 부임한 광서수부(廣西帥府)에 그의 하인 중에 정뇌(鄭牢)란 늙은 하인이 있었는데 그 또한 강직하였다.

어느 날 산운이 정뇌에게 물었다. “세상 사람이 말하길 장군이 되면 탐욕스러워도 탓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도 역시 탐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니 “장군께서 처음 오실 때는 깨끗한 흰 도포와 같으니 한번 더러워지면 끝내 씻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또 묻기를 “사람들이 토착 미개인들이 보내오는 선물을 받아주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의심하고 성낼 것이라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니 정뇌가 대답하길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뇌물을 받아먹으면 조정에서 중한 벌이 있을 것입니다.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개인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니 산운은 그 후 청렴한 지조가 끝내 변하지 않았다.

4. 국내 청렴인물

포천현감 이지함



□ 이지함의 포천현감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지함은 베옷에 짚신을 신고 베로 만든 갓을 쓰고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전이 음식상을 차려 올리자 이지함은 가만히 바라보더니 “먹을 게 없군” 했습니다. 아전은 뜰에 끓여 앓아 말했습니다. “저희 고을에는 특별한 산물이 없어서 맛난 음식을 미처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차려 올리겠습니다.”

잠시 후 아전은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더 좋은 음식들을 차려 내왔습니다. 이지함은 또 가만히 바라보더니 “역시 먹을 게 없군” 했습니다. 아전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자 이지함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려운 것은 양반이나 관리들이 음식에 절제가 없어서네.** 나는 음식 먹는 사람들이 밥상을 미화하는 것을 싫어하네.” 그리고는 오곡을 섞어서 지은 밥 한 그릇과 미역국 한 그릇을 지어 갓 넣은 갓집에 담아내어 오게 했습니다. 다음날, 그 고을에 어떤 양반이 문안을 드리러오자 이지함은 시래기죽을 내오게 하고 그와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양반은 고개를 숙이고 수저를 들고는 입안에서 우물거리기만 할 뿐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함은 그 시래기죽을 맛나게 다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지함 성품 때문에 포천현감을 그만두고 떠나게 되었을 때는 고을 사람들이 길을 막고 떠나지 말라고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라디오 시사고전 고려대 심경호 교수 2009.2.9>

*사진설명: 조폐공사 100인 시리즈 기념인물 이지함 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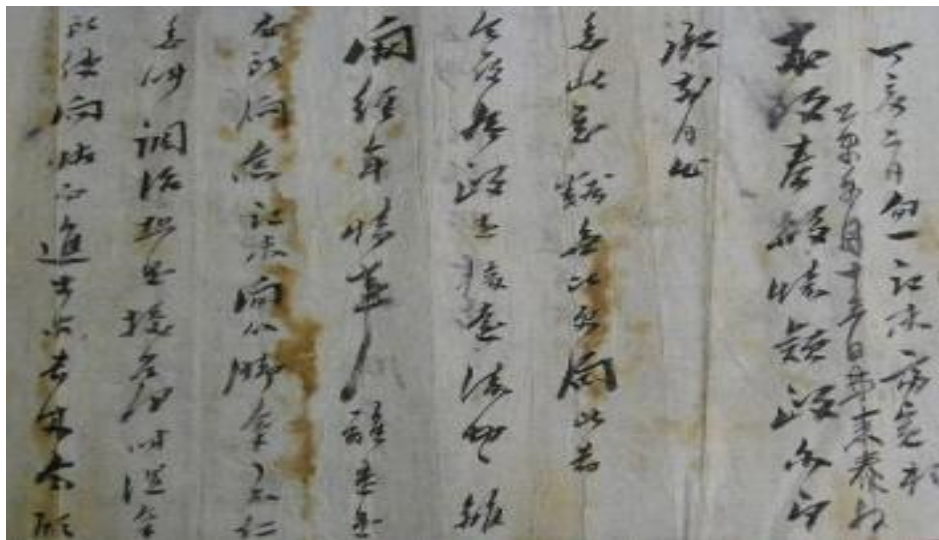
합천군수 이병태

□ 조선시대 이병태는 홍문관·사간원·사헌부·승정원·성균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요직에 있다가 탕평책에 반해 합천군수라는 외직으로 직천되었다.

합천에 부임하였을 때 흉년이 들었으나 국고를 덜어서 진휼한 양식을 확보한 까닭에 군내에는 굶어죽거나 걸식하는 자가 없어 다른 지방에서까지 찾아오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진휼을 맡은 관리가 식량이 떨어질까 걱정하여 외인들을 축출하기를 건의하자 “국가에 견지에서 보면 모두 적자이다”라고 하여 모두 온전하게 진휼해 주었다.

또 해인사가 있어 부역이 심했는데 백성들의 부역을 덜게 하고 자기의 음식과 의복과 거처를 검소하게 하여 백성이 부담하는 관청의 비용은 일절 수렴하지 않아 흉년을 겪더라도 백성들이 편안하게 하였다. 아전들은 군수의 청렴함을 두려워하여 감히 간악한 짓을 하지 못하였다.

<지교헌(2002) 청백리 이병태의 정치철학과 공직윤리>



*사진설명: 이병태의 글씨체

5. 청렴과 가정의 행복

❑ 청렴은 사회생활에만 국한되었다고 생각하면 금물입니다.

앞선 사례들처럼 개인의 청렴은 가정의 평화와 조직의 건강 그리고 사회의 발전의 공통된 요소이며 상호작용 속에서 청렴문화는 성장해갑니다. 청렴문화의 성장은 다시 사회적 기반시설이자 자본으로 사회의 보이지 않는 비용을 축소시켜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결국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줍니다. 청렴은 우리 생활의 맑은 공기와 같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인해야 합니다.

● 가정도 청렴해야 행복해집니다.

